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첫 삽'

전주시, 건립 기공식 가져... 2024년까지 다목적체육센터·주민문화공간 조성

3만여 명이 입주한 전주 에코시티의 행정·복지·문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에코시티 주민들의 체육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53억 원 등 총 19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535㎡(1976평) 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와 주민문화공간의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다목적체육센터는 길이 25m·6레인의 수영장, 배구·농구·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갖춰진다.

주민문화공간의 경우 민원실을 비롯한 행정 공간과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야외테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라스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최종 설계를 마치고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김승수 시장은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며, 도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공간일 것"이라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행정·체육·문화거점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선미촌 상처 치유할 '정원의 숲' 조성 추진

전주시, 2억5000만원 투입·봄맞이 꽃 식재 행사 가져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한 전주 선미촌에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정원의 숲'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28일 선미촌에 정원된 시티가든인 기억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위원,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사,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꽃 식재 행사를 했다.

선미촌 정원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된 사업으로 기린대로와 관음대로, 불왕명2길 일부 구간, 인권공간(시티가든), 기억공간(시티가든), 뜻밖의 미술관 일원 골목 등에 정원을 조성한다.

식재행사를 추진했던 기억공간은 팔배나무와 목수국, 털수염풀, 휴케라, 가우라 등이 심어져 마을 주민

들을 위한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원의 숲 조성을 통해 선미촌 곳곳에 가로정원과 골목정원 등이 조성되면 과거 어둡고 그늘졌던 골목이 사람들이 모이고 주민이 연대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닫혀있던 공간, 오랫동안 기억에서 잊힌 공간이었던 선미촌이 서노송 예술촌으로 변화해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원 조성과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성매매집결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8일 선미촌에 정원된 시티가든인 기억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위원,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사, 마을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꽃 식재 행사를 했다.

자연과 교감하며 즐기는 '건지 유아숲체험원'

전주시, 개장 기념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숲 놀이 행사 개최... 체험시설·교육공간 등 마련

건지산에 아이들이 숲과 더불어 성장하고 자연을 벗 삼아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전주시는 송천동 어린이 창의체험관 인근에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건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28일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숲체험원의 주인공인 아동과 초등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숲 놀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유아숲체험원에서 진달래와 수국 등 야생화를 심어보고,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 놀이시설을 체험했다.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놀아보는 자유 놀이 시간도 진행됐다.

건지산 일원에 조성된 '건지 유아숲체험원'은 전주에 조성된 다섯 번째 유아숲체험원으로, 중국단풍과 뱀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목대가 있어 생태교육을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숲체험 영역의 경우 △유아존 △아동존 △청소년존 △한마음존으로 구성돼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령대별 맞춤형 체험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산림 지형을 이용한 숲길 산책코스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봉나무건너기, 그물안벽, 밧줄타



전주시는 송천동 어린이 창의체험관 인근에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건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28일 개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 외줄건너기, 트라이하우스 등의 놀이 체험시설 △덧발 등 관찰체험시설 △숲 대피소 등 총 32종 51개소의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공간이 마련돼 있다.

시는 건지 유아숲체험원 인근에 생태동물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임금님 숲, 배짱이 숲, 덕진공원 맘껏 숲·맘껏 하우스 등이 위치한 만큼 향후 이 일대가 아이들의 놀이코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미 조성된 인후공원·혁신도시·학산·서곡지구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해 오는 12월 초까지 하루 2차례

(오전 10시, 오후 2시) 계절별·주제별 무료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가 상시 배치돼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 향상을 돕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야호 5대 정책의 출발점인 생태숲놀이터는 아이들의 행복과 창의적 통찰을 깨우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장소"라며 "예술평화터, 책놀이터, 야호전환학교, 부모교육 등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 욕구조사·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이를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주시는 28일 시청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전주시 장애인 욕구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제1기 전주시 장애인복지계획 분석 및 평가, 장애인 질적·양적 실태조사 등 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옥 책임연구원(전북대학교 교수)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삶의 품격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향하면서 개인이 가진 특성(개인적, 환경적)에 기반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품격과 행복을 공유하는 누구나 살맛나는 도시 전주'라는 제2기 전주시 장애인복지계획의 비전 아래 △인권 △사회적 포용 △자립의 3가지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품격 있는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삶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함께하는 삶 △맞춤형서비스 확충을 통한 건강한

삶 △인권보장 및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삶의 4가지 목표 등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탈시설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독거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 지원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전동스쿠터 무료 대여사업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 및 보호시스템 구축 △감염병 재택치료비 지원 등 30여 개의 사업을 내놓았다.

시는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제2기 전주시 장애인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예산확보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어르신 40명에 틀니 무료 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시술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틀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 시는 올해 40여명을 선정해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단, 최근 7년 이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나 과거 보건소를 통해 무료 틀니 시

술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의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은 지역 협력 치과원을 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6321)로 전화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